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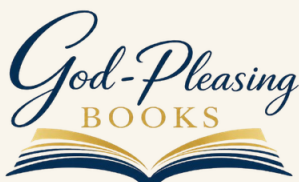
หนังสือเล่มเล็กเพื่อการประกาศและศึกษาพระกิตติคุณ

คุณต้อง บังเกิดใหม่

พวกท่านต้องเกิดใหม่
ยอห์น 3:7



เรียบเรียงโดยอ้างอิงจากหนังสือของ
Jonathan L. Master



원저자 소개와 참고 문헌



Jonathan L. Master 소개

Jonathan L. Master 는 University of Aberdeen 에서 Ph.D.를 받았으며, Green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GPTS)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PCA)의 Teaching Elder 이며, You Must Be Born Again 을 비롯한 여러 개혁주의 신학 저서를 집필·편집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이 한국어판은 태국어 전도책자를 기준으로 문단의 의미와 구조를 최대한 그대로 옮긴 직역본입니다. 조나단 마스터의 영어 원서를 직접 번역한 책이 아닙니다. 태국어 원본 전도책자는 Jonathan L. Master 의 You Must Be Born Again 의 주요 주제와 신학적 흐름을 참고하여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주요 참고 문헌

Jonathan L. Master, You Must Be Born Again. P&R Publishing, 2024. ISBN 9798887790480.

성경 인용 안내

한국어판의 직접 성경 인용문도 태국어 원본에서 사용한 THSV11 문장을 직역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정식 성경 번역의 문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한국어판의 번역 기준 원문은 태국어 전도책자입니다.



God-Pleasing Books · 2026

제 1 편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을 끊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잊고 싶어 하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이 삶이 아직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을 바꾸고, 사는 곳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며, 심지어 삶의 목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은 주변의 여러 가지가 이미 달라졌는데도 마음속의 고통과 죄와 공허함은 여전히 이전과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정말로 내면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전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3, 태국어 THSV11 직역)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할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7, 태국어 THSV11 직역)

이 말씀은 인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입니다. 단지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변화되는 것이며,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새 생명’ 또는 ‘생명을 받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 있던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완고한 마음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며, 인간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거듭남을 어느 한때 생기는 감정으로만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남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며, 살아가는 방식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재 전체에서 우리는 왜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지,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 2 편 인간의 참된 문제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은 인간의 문제가 환경에서 생긴다고 믿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회에서 산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외적인 것이 바뀌면 자신도 따라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소, 직장, 친구 또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더 깊이 보게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우리 주변의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고, 인간의 본성은 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만큼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며, 참으로 그분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진리는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언어, 어느 문화이든 이기심과 탐욕, 교만, 거짓말, 시기과 미움이 늘 존재합니다. 죄의 형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문제의 근원은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우리가 실제로 죄를 행동으로 옮길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욕망과 의도가 모든 말과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상태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자주 결과만 고치려고 합니다. 말을 억제하고, 습관을 바꾸고, 어떤 죄를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삶을 어느 정도 더 낫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그대로이면 죄는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단지 ‘더 좋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될 때에야 삶 전체가 참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 3 편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켜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문제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은 ‘그렇다면 내 마음을 더 좋게 바꾸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선을 행하고, 이전보다 죄를 더 멀리하며, 더 질서 있게 살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참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외적인 행동은 바뀔 수 있지만 안의 마음은 여전히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나쁜 습관을 끊었지만 다른 종류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탐욕을 끊었지만 교만으로 가득해질 수 있고, 쉽게 화내는 습관을 끊었지만 칭찬과 명성을 더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떤 한 가지 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명을 세밀하게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삶은 존경받고 본받을 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동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눈이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보십니다. 그분은 외적인 모습으로 삶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 안의 동기와 생각과 욕망을 보십니다.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을 수 없듯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도 참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노는 살인의 뿌리이며, 음욕은 간음의 뿌리이고, 악한 말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죄가

손으로 행동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좋은 결심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자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잘못하지 않겠다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죄에 넘어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죄에 빠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은 문제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지 더 많은 규칙을 제시하거나 인간에게 더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마음에 있다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새 마음이며,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더 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곧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새로운 생명은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주신 약속, 곧 어느 날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과 그분의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4 편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인간의 참된 상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교육이나 환경이나 외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에게 새 마음을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너 자신을 변화시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내가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 36:26, 태국어 THSV11 직역)

이 약속은 참된 변화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한 마음을 살아 있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돌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인간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단지 의무였던 것이 기쁨이 되고, 억지로 하던 것이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돕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약속은 구원이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부르시며, 인간이 그분께 응답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주셨던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므로, 인간이 스스로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는 것, 곧 새 마음과 새 생명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5 편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정통한 교사였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그에게 여전히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 가까이에 있는 것도 새 생명을 가진 것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자라거나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거나 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출생을 생각했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 곧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출생은 우리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지만,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일부 사람에게만 알맞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새 생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그분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새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6 편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이 변화가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새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잎이 움직이고, 나무가 흔들리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바람 자체를 보지 못해도 바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성령을 볼 수 없고 그분이 일하시는 모든 단계를 설명할 수도 없지만,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그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무관심하던 마음이 그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성경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상도 아니고, 선행의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시작하시고 그 생명이 계속 자라도록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분은 믿는 사람을 홀로 건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죄를 지을 때 경고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힘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매일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아직 연약함이 있고 죄와 싸워야 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거듭난의 열매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7 편 새 생명은 새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 변화는 거둬낸 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새 생명은 살아가는 가운데 서서히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살아 있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도 새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여전히 연약함과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은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마음은 그분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더 이상 단지 종교 서적이 아니라 생명을 먹이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고,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직 완전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날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성장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변화가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거둬낸 열매는 즉각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삶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죄를 더 미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볼 때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미 완전한가?’가 아니라 ‘내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언제나 새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제 8 편 거듭난 사람의 소망

◆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뒤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과 질병과 실망을 겪고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믿는 사람이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매일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시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힘을 주고, 변화시키십니다. 때로 믿는 사람이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께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구원이 인간의 강함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믿는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이 중간에서 멈추게 두지 않으시고, 믿는 사람을 자라게 하셔서 어느 날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만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을 바라봅니다.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가 없고,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믿는 사람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삶의 길이 쉽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일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욱 그분의 아들을 닮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만 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소망으로 앞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변화시키며 완전한 영광을 얻는 날까지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았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 9 편 당신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았는가



지금까지의 교재를 통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참된 문제는 외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며,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 열심으로 새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부터 새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영을 자기 백성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믿음으로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즉시 완전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회원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가, 또는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3, 태국어 THSV11 직역)

아직 이 새 생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합니다.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바라지 말며,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께 오는 사람은 용서를 받으며,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은 날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평생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그분과 완전하게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교재가 우리를 다시 데려오는 하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분이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믿는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나 종교나 우리의 선행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God-Pleasing Books • 2026